

圓佛敎와 社會福祉

沈 大 燮*

I. 宗教福祉의 韓國的 背景

조안 히긴스는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¹⁾ 하나는 종교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 제공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주로 후자의 경우에 관심을 두고 대상의 한계를 시설보호사업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관심의 영역을 단순화 시키므로써 논의의 증부를 피해 보자는데 뜻이 있다.

사회복지 대상을 社會福祉事業法이 규정하는 사회적 낙오자에 한정시켜보는 것은 첫째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法的 認可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고, 둘째 교회의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의 소외된 자와 지역복지의 중심 기관으로서 교회의 역할에 일차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의 종교와 사회복지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사회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온지 30여년이 경과했음에도 현재 사회사업 일선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 희생심에 바탕한 비전문인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는 점이고, 들은 한국 종교의 급성장과 함께 교회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이 문제되고 있는 점이다. 끝으로 한국의 多宗教狀況과 宗教福祉의 志向性에 대한 절점이 요청되고 있는 점이다.²⁾

* 國光大 社會福祉學科 助敎授

1) J. Higgins, *States of Welfare: Comparative Analysis in Social Policy*, Oxford Basil Blackwell, 1981, p. 73

2) 金鍾瑞, 현대사회와 종교의 역할, 「현대사회」 1987 봄호, pp. 26~41

먼저 매년 배출되는 6백여명의 사회사업(복지)학과 졸업생들이 사회사업 일선에는 진출하지 않고 대부분이 타직종을 찾아 나간다는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大卒者들이 원하는 初賃水準은 30만원 이상이고 年 400%의 보너스 지급과 각종의 보험혜택 및 週休 年假의 근무조건이다. 이와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요구가 사회사업계에서는 터무니 없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보수 무휴가가 통례로 되어 있는 시설사업에서 이같은 주문은 사치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에게 어느 시설장으로부터 가족과 함께 入住하여 달라는 요청이 온 일이 있다. 물론 생활보장과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도 약속하였다. 교수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기를 권유했으나, 본인은 며칠을 두고 생각하더니 마침내 거절하고 말았다. 그후 그는 전공과는 다른 소규모 판매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출퇴근이 없는 시설보호사업이 선택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회사업시설의 대부분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79년 노상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사업시설의 90% 이상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확인 가능한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시설이 기독교나 원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사업의 현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전문인력의 시설사업 진출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종교인들의 헌신적 봉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시설사업에 뛰어 들어 헌신적인 생애를 보내는 독실한 신앙인과 종교단체가 있는가 하던 급신장 되고 있는 한국 종교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은 너무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5. 11. 1 기준 경제기획원이 조사 발표한 종교인구는 1천 7백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2.6%이다. 이 가운데 天主教 및 改新教 교인수는 8백 34만명이며 종교인구의 48.5%가 된다.⁴⁾ 다시 말하면 종교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한국인의 5분의 1은 기독교 신자인 셈이다. 그러나 교인수의 증가만

3) 魯德學, 基督教과 社會福祉, 「社會福祉」, 1979 겨울호, p. 26

4) 東亞日報, 1987. 11.

금 社會福祉가 增進되었으며 敎회의 대형화에 비례하여 社會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는가. 이러한 관심은 학계는 물론 대내적으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와 대외적으로는 한국전립조사연구소의 조사 자료가 나와 있다.

최근 敎회 재정구조에 관한 어떤 연구보고서는 成人信徒 한 사람이 내는 년 평균 헌금액을 13만 5천원으로 계산하였다.⁵⁾ '84년도 종교인구조조사에 나타난 개신교 신도 533만명중 실제 신도 3백만을 계산했을 때 총 헌금액이 4천 5십억원이나 되었다. 85년도 센서스 보고에 따르면 新·舊敎 信徒가 8백 34만명으로 이 중 헌금 의무교도를 5백만으로 계산한다면 헌금총액은 6천 7백 5십억원이 된다. 十一種을 社會봉사비로 책정한다면 675억원의 계산이 나온다. 個敎會의 社會봉사비는 조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노치준은 전체예산의 2.3%(전국), 崔海京의 경우는 4%(서울)로 보고하여⁶⁾ 오늘의 敎회가 社會봉사에 얼마나 인색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립조사연구소가 "헌금액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⁷⁾ 건물 짓는 것이 38.3%로 가장 많고 다음은 포교 및 전도(18.4%), 자선 社會봉사(16.7%), 인건비·유지비(13.9%), 교육·문화사업(3.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면 "헌금액이 어디에 쓰여지기를 바라느냐"에 대하여는 자선·봉사 62.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교육·문화(20.1%) 포교 및 전도(8.4%), 건물(1.9%), 인건비·유지비(1%)의 순으로 응답하여 자선 및 교육사업에 83%의 지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多宗教狀況이 한국의 社會복지 증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민족과 인류의 구원을 외치고 布敎門을 열어 신도수를 늘려 나갈 때 그만큼 社會복지는 증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改新敎 100주년을 앞두고 "全軍의 信者化" 운동과 "한국의 福音化" 운동이 전개될 일이 있다. 이것은 無信者의 信者化는 물론 타종교 신앙자의 완전한 改宗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종교간의 신자 유치경쟁이 敎파간의 경쟁

5) 노치준, 改新敎會의 財政構造와 그 方向, 「思想과 政策」, 1984 여름호, 京郷新聞社, p. 55
 6) 崔海京, 「한국기독교회의 社會적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78
 7) 「한국인의 宗教와 宗教意識」, 한국전립조사연구소, 1984, p. 173

으로 발전하여 교회 이웃에 교회가 들어 서는 教會林立의 時代를 맞고 있다.⁸⁾ 종교적 팽창주의는 양적 증대와 物量主義로 내달아 교회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종교간 대화의 단절이 종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한 素地가 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은 국민소득의 평균적 신장에 따라 점차 해소되리라 보고 있으며, 언젠가 南北間의 긴장마저 완화된다면 종교간의 갈등이 현재화 될 것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⁹⁾ 1955년 六大宗教로서 시작된 한국종교협의회가 종교간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¹⁰⁾ 버저에 의하면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는 다른 종교 집단들이 경쟁적 상황에 共存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종교기관의 市場化 *marketization*를 가져 오게 되고 종교활동은 더 이상 권위적으로 부과될 수 없고 소비자 선호이론에 따라 잘 관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多元化時代의 한국종교들은 교회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신자의 유치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 80년대의 적극적인 인권운동이 신자의 급신장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1988년 11월에 第二代 決算總會를 맞고 있는 원불교의 경우에도 第三代의 設計는 교화·교육·자선의 본래 3대사업목표의 균형된 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II. 韓國宗教로서의 圓佛敎

한민족에게는 원시시대부터 巫敎 *Shamanism*라고 하는 民俗信仰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三國時代부터 儒·佛·仙 三敎가 中國으로부터 전래되어 왔다. 朝鮮末에는 西歐로부터 기독교가 유입되고 국운의 쇠운과 함께 사상의 혼란기를 당하여 소위 國產宗教로 불리는 新興宗教들이 잇달아 創敎되었다.¹¹⁾

8) 金鍾瑞, 앞의 책, p. 41

9) 尹以欽, 종교갈등의 현실과 화해의 모색, 「현대사회」, 1987 봄호, p. 56

10) P.L. Berger, *The Sacred Canopy*, N.Y., Anchor Books, 1967, pp. 135~138

11) 한국종교사학회편, 「韓國宗教」,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73

1860년 崔水雲(濟愚)의 東學선언을 시작으로 1900년 姜甌山(一淳)의 甌山敎, 1909년 羅喆의 大宗教, 1916년 少太山의 圓佛敎가 後天開闢을 알리며 한국 민중들의 삶속에 파고 들어가 回生의 길을 제시하였다.¹²⁾ 韓末에서 日帝時까지 이 강토를 떠날 수 없었던 生民들 속에서 新興宗教의 지도자들은 民族更生の 지력을 심어 주었다.¹³⁾

원불교는 1916년 4월 교조 少太山 大宗師(朴道彬 1891~1943)의 大覺으로 開敎되었다. 그는 그의 탄생지이자 成道地인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永村마을에서 1916년부터 3년동안 저축조합운동, 간석지공사, 산상기도등을 통하여 교단 創立精神의 기초를 다지었다. 그는 1919년 10월에 全北 內邊山에 들어가 1920년 5월에 원불교 교리의 강령인 四恩四要 三學八條를 발표하였다.

원불교 교리의 특징은 유·불·선 3교의 정신과 수운 증산으로 이어지는 민족적 민중적 사상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三學八條는 前者의 성격이 나타나 있고, 四恩四要는 後者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¹⁴⁾ 원불교가 한국 종교로서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四要이다. 처음의 四要는 男女權利同一, 智愚差別, 無子女者他子女敎養 公道獻身者以父事之였으며,¹⁵⁾ 8·15 이후 四要는 自力養成, 智者本位 他子女敎育 公道者崇拜이다. 信仰門으로서 四恩 四要는 四恩이 질리(一團桐)와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四要는 나와 社會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원불교 사회복지이념은 四恩에 근거하고 사회복지이론은 四要속에 제시되어 있다.¹⁶⁾

少太山은 外來宗教인 유·불·선 3교의 정신과 自生宗教인 수운 증산의 後天開闢 解怨相生의 정신을 수용하되¹⁷⁾ 宗教로서 특징은 佛法에 연원을 두고 있는 점이다.¹⁸⁾ 그는 佛法의 時代化 大衆化 生活化를 표방하고 경전을 쉬

柳東植, 「한국종교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1977
 柳炳德, 「韓國新興宗教研究」, 시인사, 1986
 12) 黃善明外 共著, 「韓國近代民衆宗教思想」, 학민사, 1983
 黃善明, 「민중종교운동사」, 종로서적, 1980
 13) 柳炳德, 「圓佛敎와 韓國社會」,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77, p. 366
 14) 원불교전서, 「大宗教」, 교의록 1장, 3장, 4장, 5장 참조
 15) 원불교교고총간 제 4권, 圓佛敎正化社, 1970, p. 75
 16) 徐允, 「圓佛敎 四要에 나타난 社會福祉理念研究」,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17) 金洛必, 病든 社會에서 열린 時代주구, 「月刊朝鮮」 1982년 12월호, pp. 86~96
 18) 원불교전서, 「正典」총서권 2, 교법의 총설.

은 한글로 편찬하고 禮法을 간소화하였으며¹⁹⁾ 교단조직을 선거제 입기제로 民主化하였다.²⁰⁾

1924년 흥부기지를 全北 益山(현 圓大基地)에 두고 佛法研究會라는 임시 교명으로 敎門을 열었다. 원불교라는 敎名을 사용한 것은 1948년 4월 이었다.²¹⁾

Ⅲ. 圓佛敎와 社會福祉

1. 圓佛敎 社會事業의 歷史的 背景

8·15 해방을 맞아 교단활동이 자유로워졌을 때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무엇인지는 원불교 교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尺度로서, 8·15 이후부터 '48년 「원불교교헌」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행사를 「圓佛敎敎史」에서 발췌해 보았다.²²⁾

'45년 「歸還戰災同胞敎護所」설치(이리역전), 위의 기관을 서울역전에 설치, 鼎山宗師(朱奎) 「建國論」저술 발표, 교아원 「서울普和園」설치

'46년 한글강습 전국문맹퇴치운동전개(약 4,000명), 교육기관 「唯一學林」개설(원광대학교 前身)

'47년 「財團法人 圓佛敎」 문교부 정관승인(敎化·敎育·慈善을 三大目的事業으로 設定)

'48년 全國代議員會에서 「圓佛敎敎憲」및 「圓佛敎」敎名 制定宣布式(1916년 創敎以後 1947년까지 「佛法研究會」 임시명칭사용).

이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가지 특징은 첫째 해외및 만주등지로부터 귀환하는 전제동포 구호사업과 전제교아를 위한 保育園의 설치, 그리고 한글 보급운동등 전국 三大事業과 둘째, 재단등록을 통한 교단 3대사업목표 제시를 들 수 있다.²³⁾

원불교가 사회사업의 문을 연것은 8·15와 더불어 서울역전의 귀환전제동

19) 원불교전서, 「大宗經」, 서품 18장

20) 佛敎研究會規約, 「원불교교고종간」 제 4권, 1937, p. 11

21) 鼎山宗師法語, 제14 경문편 1장, 「원불교전서」, p. 947

22) 「원불교교사」, 원불교전서, pp. 1366~1374

23) 구체적인 사업실적은 상계서, p. 1368, 「전제동포 구호와 건국사업」참조.

始創三十年度 事業報告書, 「원불교교고종간」 제 5권, p. 169~170

포 구호사업에서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수용 보호한 데서 시작되었고 양로사업은 총부(益山)와 지방(全州)에서 각각 무의탁 노인들의 봉양을 위해서 양로원을 설치함으로써 機關確立을 보게 된다. 교조 少太山 大宗師는 「우리의 사업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고 말하여 사회사업을 교단 3대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을 유언하였다.²⁴⁾ 교조 재세시 梨花女專 保育科 출신인 제자 黃溫頤(法名 淨愍行)을 원장으로 고아원 설립을 시도한 일이 있으나 日帝의 간섭과 재정곤란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²⁵⁾ 8·15 이후 二世 宗法師 宋鼎山은 「財團法人 圓佛敎定款」에 교화·교육·자선을 目的事業으로 밝히고 고아원과 양노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교육기관인 「唯一學林」(원광대학교 전신)을 개설하였다. 法人 定款에 명시된 三大目的事業은 다음과 같다.²⁶⁾

제 1 장 목적사업

제 1 조 : 본 법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敎化 및 敎育 慈善(의료포함)등 公益事業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경영한다.

1. 원불교 포교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의 유지경영
2. 교역자 양성기관 및 육영기관의 유지경영
3. 양로 및 육아 救療機關 유지경영
4.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25 사변은 서울 고아들의 피난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피난 고아들의 일부를 益山本部에 별도 수용한 것이 「益山普和園」이었다. 1953년 裡里市로부터 「裡里保育園」을 인수하여 3개의 고아원이 되었다. 그러나 서울구호소 지휘책임 맡은 宋道性이 귀환동포 구호와 고아원 운영자금조달을 위하여 활동중 전염병으로 열반하게 되자 원불교 사회사업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²⁷⁾

24) 원불교전서, 「大宗經」 부속품 15장
 25) 원불교교고총간 제 5 권, p. 150
 李恩錫, 「正典解義」, 圓佛敎出版社, 1985, p. 436
 26) 원불교교고총간 제 6 권, p. 218
 27) 主山宗師文集, 원불교출판사, 1980, p. 411

2. 圓佛敎 社會事業의 實態分析

원불교는 교화·교육·자선의 數團三大事業目標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財團法人圓佛敎(교화), 學校法人圓光學園(교육), 社會福祉法人三同會(자선)을 형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중에서 원불교 사회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三同會이다. 三同會 소속의 시설현황을 보면 ① 노인복지시설—중앙수양원, 중앙수양원 長水分院, 전주양로원, ② 노인요양시설—원광노인요양원, 제주원광노인요양원, ③ 아동복지시설—이리보육원, ④ 부랑인복지시설—裡里慈善院, ⑤ 장애인복지시설—三精院, ⑥ 청소년상담시설—三同靑少年相談室이 있다.

이상 三同會 소속의 9개시설 외에 在家敎徒 운영시설로 福祉法人昌弼財團의 韓國保育園(원장 黃溫順)과 福祉法人開城有隣園의 有隣保育園(원장 尹致德)이 있다. 이 시설들은 1980년대에 理事陣을 개편하여 2인 가족 이사의에 3인의 출가교역자를 참여시키므로써 교단 지역시설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도 8·15해방과 6·25사변 당시 설립되었으나 1960년대에 원아들의 감소로 폐쇄된 서울普和園과 釜山普和園 등 2개 시설이 있다. 이들은 원불교 사회사업의 분호를 열어 준 역사적인 기관들이었다.

원불교 사회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립년대별 설치지역별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8·15해방당시 2개의 양로시설과 1개의 보육시설이 설립되고 6·25 이후 2개의 보육시설이 추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2개의 양로시설중 중앙수양원은 원불교 본부 구내 거주 퇴직 교역자들의 노후대책과 병행하여 설립되었고 전주양로원은 원불교전주지부 교도들의 발의도 설립된 것이다. 1개의 보육시설은 1945년 9월부터 시행된 戰災歸還同胞 구호사업중 부모 없는 고아들을 모아 설립된 것이다.

6·25 이후 설립된 4개의 보육시설중 익산보화원과 이리보육원은 원불교 본부가 설립한 것이고 다른 2개의 시설은 재가 교도 개인 명의로 사회사업 기관이다. 특히 한국보육원은 在家 首位團員인 黃溫順여사가 서울 普和園 원

〈표 1〉 원불교 사회사업시설의 설립연대 및 설치지역

사업별 시설명	설립연대			시 군 지역						
	1940	1950	1980	서울	시	군	서울	경기	전북	제주
아동복지	○			○			○			
서울보화원	○			○			○			
익산보화원		○				○			○	
이리보육원		○			○				○	
한국보육원		○				○		○		
유린보육원		○		○			○			
노인복지	○				○					○
중앙수양원	○				○					○
중앙수양원장수분원			○			○				○
진주양노원	○				○					○
원장노인요양원			○		○					○
제주양노원			○			○				○
부랑인복지			○		○					○
이리자선원			○		○					○
장애자복지			○			○				○
삼경원			○			○				○
상당제도사업			○		○					○
삼동청소년상당실			○		○					○
합 계	3	4	6	2	6	5	2	1	9	1

비고: 서울보화원, 익산보화원은 1960년대에 이리보육원으로 통합함.

장직에서 국립 「한국보육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나갔다가 1956년 제주도에 있는 시설을 서울로 옮기면서 私財를 들여 法人化한 것이다.²⁸⁾ 계성유린원은 계성교도인 尹致德여사가 6·25 이후 서울 면목동에 설립한 보육시설이다. 이 두 시설이 1982년과 1985년에 각각 5인의 이사전중 3인의 교역자를 이사전으로 맞아 들이므로써 원불교 본부 운영시설로 편입되었다.

민족의 해방을 맞아 교단 3대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원불교 사회사업은 그 후 별다른 전전이 없었다. 80년대를 맞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지원책에 힘입어 비로소 3개의 양로시설과 3개의 특수사회사업시설이 추가 신설되고 있다. 6·25 이후 30년간을 2개의 양로시설과 1개의 보육시설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원불교 교단의 사회사업 지원책이 빈약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28) 한국보육원은 원래 國立시설로 6·25 당시 美空軍 「해스」대령의 도움으로 제주도에 공수된 원아들로 설립됨. 원장 黃濬顯은 8·15 당시 梨花莊과 梨花病院(원래 京大門病院)의 소유자로 이승만 박사와 인연이 되어 한국보육원장직에 위촉됨.

또한 시설의 지역분포를 보면 전북지역과 시단위지역 편재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전북지역에 중앙본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출가교역자 거주지 및 시설관리의 편의점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의 재정지원도 군단위보다는 시단위가 용이하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3. 圓佛敎와 社會福祉資源

원불교 교단이 사회사업을 교단 3대사업목표로 천명한지 40년이 되었다. '87년 현재 원불교 사회사업기관은 11개이고 그중 8개시설이 80년대에 설립되거나 편입된 것이다. 시설의 운영은 정부의 일률적인 80%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단측은 인사의 파견과 여타의 관리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物的 資源의 지원과 교단의 人的 資源의 제공으로 시설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11개 시설사업에 국한지어진 원불교 사회복지활동은 3대지표와 40년사의 면모를 대변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화·교육·자선은 독립적이면서 並進的 性格을 지니고 있어서 한 가지 사업은 여타의 다른 두 가지 사업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교화기관인 敎堂은 교화 우선의 布敎活動을 전개하면서 사회교육사업과 사회봉사사업을 月別 및 年間事業計劃에 반드시 설정 시행하고 있다. 교육기관인 敎立學校에서도 교화와 사회사업을 부대임무로 알고 운영자들은 銘心 移行하고 있다. 敎立 圓光大學校가 80년대에 社會福祉學科를 신설한 것도 교단측의 3대사업목표 실현에 부응한 것이었다. 자선기관이 敎化敎育의 사명을 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대사업을 상호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부존자원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理念的 制度的 밑바침에서부터 활용가능한 시설 및 재정자원을 비롯하여 수시로 교체 가능한 人事의 단행과 자원봉사 그리고 유사봉사단체의 봉사활동 간접지원을 들 수 있다.

1) 理念 및 制度的 資源

이념과 제도 그 자체가 자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념과 제도로 인하여 인적 물적 자원이 수시 또는 항구적으로 창출되고 보장된다고 할 때 無形의 財源이 되는 것이다.²⁹⁾

理念的으로는 敎祖의 創立精神(無我奉公)과 敎理의 四恩四要精神(報恩佛供) 그리고 敎憲의 前文에 明示된 자선 奉公 福利事業의 勸명을 들 수 있다. 制度的으로는 중앙총부교정원 편제에 公益部(福利事業部) 부서의 敎區別奉公會와 四大奉公會 단체조직이 있다.

2) 敎化機關과 福利資源

(1) 人的 資源—① 專務出身으로 상징되는 出家敎役者의 無我奉公 정신과 자세. 私를 버리고 공을 나루는 투철한 전무출신 정신은 교역자가 곧 사회 사업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② 교당봉공회 및 교구봉공회 회원, ③ 교당 및 교구별 학생 청년회 회원

(2) 物的 資源—① 敎堂의 건물 및 녹지공간(例: 예식장, 회의실, 강연장, 집회장소 활용)

(3) 財政資源—교도의 헌공금 및 봉공회비(例: 교구단위의 年例 및 春秋 報恩 바자회)

3) 敎育機關과 福利資源

(1) 학교교육기관—원광대학교와 남·녀 중·고등학교

(2) 사회교육기관—서울회관, 부산회관, 東明訓練院, 萬德山訓練院, 小南訓練院, 제주국제훈련원, 中央訓練院, 하섬훈련원, 변산태양훈련원

(3)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4) 자원봉사단체

(1) 四大奉公會—1969년 大山宗法師의 유시에 따라 1977년 4월 「원불교 봉공회칙」등과 出家奉公會(출가교도 원호사업) 在家奉公會(재가교도 원호사업) 國家奉公會(국가민족에 대한 원호) 世界奉公會(세계인류에 대한 원호) 현재 전국 20개 교구별로 활동하고 있다.

(2) 圓佛敎靑耘會—70年代 서울청운회 조직을 시발로 전국 교구별 조직으로 확산되어 현재 청운회전국연합회(회장 趙正濟) 및 12개 교구 청운회조직되어 「報恩동산」재단을 형성 부랑인 및 장애자 종합복지사업 추진중, 회

29) 金泳漢, 宗敎와 社會福祉, 「圓佛敎思想」제 9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86, p. 5

朴宗三, 인간자원동원과 종교사회복지의 과제, 「제 2차 전국사회복지대회보고서」, pp. 165~166

원의 다양한 전문직 기술을 활용 지역사회 종합봉사단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圓佛敎敎授協議會(참가회원 170여명)와 圓佛敎醫師協會(참가회원 62명) 등이 있다.

IV. 結論 및 展望

제Ⅲ장의 1,2에서 살펴본 원불교 사회사업의 전망은 어둡다. 교단 정책 사업으로 출발시킨 원불교 사회사업(자선사업, 의료사업포함)은 40동안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5·60년대의 外援依存 상태에서 7·80年代의 政府支援체제에 순응해 온 흔적이 역력할 뿐이다. 자체의 변혁을 시도한 일이 없이 외부의 변화에 적응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설보호사업에 그치고 전문적 사회사업서비스 기능은 개발하지 못하였다. 80년대에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부랑인복지, 정신장애자복지, 노인요양시설등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실과 종합복지회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사업은 교역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전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4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의 사회사업은 전통적인 자선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제Ⅲ장의 3에서 본 원불교의 사회사업은 앞의 정체성을 극복하고도 남을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87년에 改正 통과된 「원불교교헌」前文은 사회복지 과업추진을 明文化시키고 있다.

「(전략)……우리는 教祖께서 九人弟子와 더불어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靈山防艇과 法認聖準로 교단창립의 기본을 다져 준 정신을 이어 받아 교화·교육·자선의 3대 사업과 산업·훈련·복지·문화·奉公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濟生濟世의 사명안수에 매진한다.」

82년도부터는 敎立大學 圓光大學校에 社會福祉學科를 설치하고 專門人 양성에 對備하고 있으며 이미 타대학과 外國에서 사회사업 전문교육을 研修중에 있다. 중앙총부 교정원 직제에 社會福祉部(公益部)가 설치되어 있고 후원

단체로서 「慈濟事業會」가 발족되어 있다. 전교단적인 奉公組織으로 「四大奉公會」 조직확산과 기금조성에 나서고 있다. 교구단위로 奉公會가 조직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靑耘會의 「報恩동산」은 87년 현재 후원회원 3천명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재단 형성과 시설보호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在家信徒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出家敎役者들을 자극하여 원불교 사회복지 사업추진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원불교 교역자와 청년들의 복지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역자의 97%가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³⁰⁾ 청년들의 98%가 절대필요성을 제기하였다.³¹⁾ 일선 교당에서 “이 헌공금은 교화·교육·자선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라고 呪文처럼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福祉基金의 敎金化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³²⁾

30) 安貞姬, 「圓佛敎 敎務의 福祉意識에 關한 研究」, 中央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4, p. 23

31) 梁海實外, 圓佛敎人의 意識構造 및 원불교청년의 의식구조, 1986, 1987, 원불교교정원 기치실, 圓佛敎人의 意識에 關한 調査研究, 「圓佛敎思想」, 十, 十一輯, 1987, pp. 827~829

32) 金成天, 圓佛敎 社會福祉의 展望과 課題, 「圓佛敎思想」 제 9집, 1986